

남원에 테슬라 고속충전기 '슈퍼차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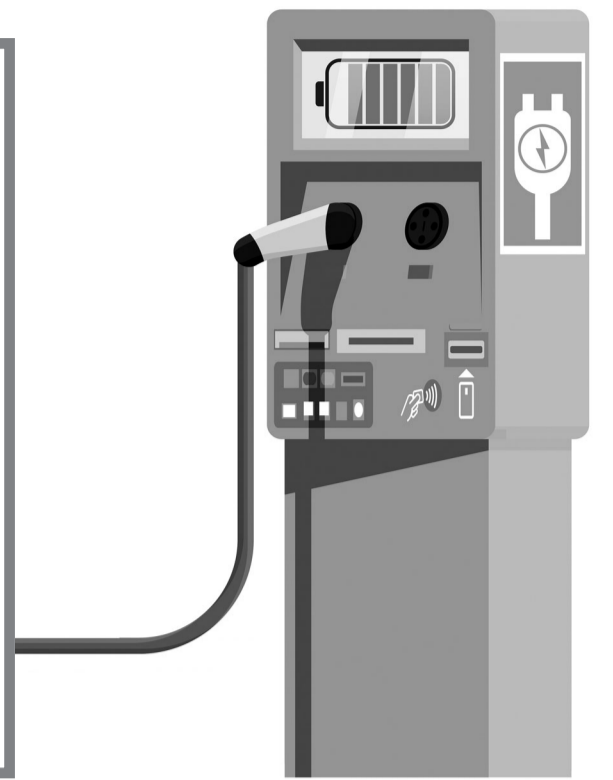
국내외 급속충전 기능 있는 모든 전기차 30분 이내 완충 합파우유원지 김병종미술관 주차장에 9기... 내년초 개방

남원에 전기자동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테슬라'사의 자원이 투입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이 들어선다. 테슬라사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전기차 중 급속충전 기능이 있는 모든 전기차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남원시는 합파우유원지에 완속충전기의 단점

을 극복하고자 테슬라에서 개발한 고속충전기 30분 이내 충전 '슈퍼차저'가 설치된다며 모든 전기차 차량의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시설은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전액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파우유원지 김병종미술관 주차장에 설치되며 충전시설의 개수는 9기다.

시에서는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테슬라코리아에서는 토지사용료도 시에 납부할 예정이다. 테슬라의 이번 슈퍼차저 설치는 단순히 충전 시설의 확충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유저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즉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차량정보 모니터 상에 남원의 합파우유원지와 김병종미술관 등 지역 정보가 지속적으로 함께 노출된다는 점에서 큰 홍보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시는 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친환경자동차 주차장 설치 의무기준까지 충족

하게 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얻게 됐다. 합파우유원지 내 테슬라사의 슈퍼차저는 올해 안에 선로매설과 전기시설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일반사용자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테슬라 슈퍼차저와 같은 새로운 관광 홍보 방식을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며 "테슬라사와 협의해 조기에 사업을 준공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귀농의 모든 것' 귀촌학교에서 배워요

17일까지 교육생 30명 모집 정작·농작물 재배·농기계 등 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가 2023년 상반기 귀농귀촌 참여 교육생을 모집한다. 정읍시 귀농귀촌학교는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귀농·귀촌 희망자와 초보 귀농인을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농업교육과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3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마감하며, 교육대상은 만 65세 이하 (예비)귀농귀촌인 또는 5년 이내 귀농인으로 교육비는 자부담 20만원이다. 교육 기간은 6월7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이며, 평일과 토요일 합숙형(일요일 제외) 교육으로 진행된다.



귀농귀촌학교 참여 교육생들이 농기계 실습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교육생은 귀농·귀촌 정착안내, 농작물 재배와 가공, 농기계 교육, 귀농·귀촌 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완료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100시간 인정)을 발급한다. 정읍시 귀농귀촌학교는 해마다 1~2회 운영하며, 현재까지 16기 수료, 총 480명의 귀농귀촌인을 배출해 온 귀농귀촌인의 산실이 되고 있다.

전정기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귀촌 학교는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와 각종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알찬 정보제공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귀농·귀촌 전문 프로그램이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총상금 1500만원 '고창 방문의 해' 영상 공모

드론 자유영상 UCC·숏츠 등 다음달까지 출품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고창군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영상공모전은 오는 6월30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전 국민이고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을 담다'가 주제다.

공모 분야는 드론영상과 자유영상이며 UCC·숏츠·다큐멘터리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출품할 수 있고 출품수는 1인 또는 팀당 3편 이내다. 해상도는 1280×720(pixel) 이상, avi·wmv·mp4 형식의 동영상파일이어야 하며 동영상길이는 3분 이내다.

심사를 통해 총 13개의 영상을 시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75만원, 입선작 50만원 등의 상금이 주어진다. 영상 공모전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내부위원을 위촉해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영상 공모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창을 방문, 여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영상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 저소득 청년 목돈마련 기회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2~4배 적립...24일까지 모집

남원시가 관내 저소득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남원시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2~4배의 목돈으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며 가구소득과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는 청년이다. 가구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초과, 100% 이하, 연령, 월 근로소득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정확한 적용대상을 알

아보려면 남원시청 주민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기지급을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총 10시간의 교육, 자금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기구가 신청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 II' 사업도 시행하며 오는 2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온기 도는 '정읍 행복나눔 공유냉장고'

계란 2400판·참쌀 50포 등 물품기부 이어져

정읍시가 이학수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운영 중인 '행복나눔 공유냉장고'에 물품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감곡면에 소재한 한솔축산(대표 모정태)에서 4월 둘째 주부터 6주간 1200만원 상당의 계란 2400판을 기부키로 했다. <사진> 태인면에 소재한 들뢰농산(대표 최정숙)은 지난달 27일 정읍시에 100만원 상당의 단무지 50kg을 기부했다. 같은 날 태인면 덕두영농조합법인(대표 김학구)도 75만원 상당의 참쌀(5kg) 50포를 기부했다. 이들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3개소의 공유냉장고(수성동, 내장상동, 시기동)에 전달되어 저소득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분위기 활성화와 공유냉장고의 든든한 후원



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시에서도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절판 판매 중

이방인

이기원 지음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